

하늘사랑

www.kma.go.kr Vol.379

2013. January **1**

신년메시지

국민과 소통하는 기상강국의 해
계사년을 '창조기상' 원년으로!

신년 기획특집

계사년 뱀띠! 세대별 소원을 듣다

포커스

'그래픽캐스트'를 소개합니다



기상청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얼음판 위의 추상화」

(2012.1.29, 전북 임실군) - 2012년 기상사진전 입선작

- 미세구멍 · 균열처 · 개구부에서 물의 반복된 동결 · 해빙(解氷)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January 1



05



18



30

Contents

KMA Special Issue

신년메시지 조석준 기상청장 · 02

윤순창 한국기상학회장 · 03

풍경이 있는 날씨촌 우리 마을의 관광명소 ‘꽃자왈’ · 04

신년 기획특집 계사년 뱀띠! 세대별 소원을 듣다! · 06

2013년 이날만은 꼭 기억할거야! · 08

날씨 에세이 기상청이 한가한 새해가 되길 바라며 · 10

하늘이 맺어준 아름다운 인연 · 12

KMA About

열린마당 ‘신생아 살리기 모자 뜨기 캠페인’, 어렵지 않아요~~ · 14

뜻밖의 선물 · 16

모두 덕분이지요! · 17

생애 첫 여권을 들고 Go! Go! · 18

슈퍼스타 KMA 참가기 · 20

VIP(Very Important Place)에 가다 · 22

포커스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기상청이 앞장서다! · 24

기상정보, 문자보다는 그림 - 그래픽캐스트를 소개합니다 · 26

KMA Hope

신간도서 소개 그것이 알고싶다 ‘화산’ · 28

날씨만화 주간예보 세분화 · 29

포토뉴스 · 30

퀴즈 · 32

선진 기상기후 서비스로 국민행복 실현 “기상이 강해야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조석준 / 기상청장

희망 가득한 계사년(癸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마음 깊이 소망합니다.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 ‘기상이변의 해’라고 불려도 될 만큼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작년 2월 한파부터 시작해, 여름엔 가뭄과 폭염으로 전국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한 태풍 3개가 연달아 한반도를 관통했으며, 강원도의 12월 상순 평균최저기온이 39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는 등 수많은 기록을 갈아치우며 2012년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상청도 이에 따라 바쁜 한해를 보냈습니다. 예보정확도 향상은 물론, 지역기상담당관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기상재해 피해 감소와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6월에 세계 6번째로 전지구정보시스템센터 서울 유치에 성공해, 전 세계 기상·기후자료와 기상기술의 메카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태풍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킨타나상’을 수상해 한국이 기상강국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습니다.

이뿐 아니라 포괄적핵심협력금지조약기구와 지진해일 분석을 위한 지진자료 교환 및 기술 교류 협약, 세계은행과 기후변화대응분야 협력을 위한 협약을 각각 맺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최초로 해양기상올림픽이라 일컫는 ‘WMO-IOC 해양학 및 해양기상 합동기술위원회(JCOMM)’ 제4차 총회를 여수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기후변화와 기상이변 대응의 선봉에 서있는 기상청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꾸준히 발전하여 지금은 세계 7위의 기상기술력으로 재난재해 예방의 선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 몽골, 아프리카 개도국에 자문관을 파견하여 기상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상영토 또한 세계로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새해 시작과 함께 기상청 박정규 기획조정관이 기상·기후 분야의 UN 산하 전문기구인 WMO의 아태지역국장으로 진출하는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새해에는 기상정보가 국민의 삶의 가치를 더욱 증진시키고, 지구촌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3년에도 국민 체감만족도 향상에 노력하여, 모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기상청이 되도록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해 새 마음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백의 해에 여러분이 뜻하신 일 모두가 이루어지는 복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새로운 정부 5년의 시작 계사년을 '창조기상' 원년으로!

2013년은 온 국민이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큰, 가슴 벅찬 한해가 될 것입니다. 기상청도 새 정부의 목표와 이념에 걸맞게 새로운 5년을 재설계해야 하는 바쁜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기상학회는 지난 50년의 기상분야 발자취를 돌이켜보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창조기상' 원년이 될 것입니다. 다행히 새 정부는 MB정부에서 없어졌던 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라는 명칭으로 다시 부활시킨다고 하니,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과학자가 우대받고 과학계가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윤순창 / 한국기상학회장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고속성장을 해왔습니다. 우리 기상분야도 눈부시게 발전하여, 이제 세계 7대 기상선진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형적인 성장에만 치우친 나머지 모든 분야에서 기초가 너무 부실한 것이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기초가 부실한 결과로 경제 분야에서는 이미 IMF 사태를 겪었고, 과학 분야에서는 나로호 발사에 계속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과학 분야의 기초가 부실함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지 성찰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상분야 50년을 돌이켜보면, 그 동안 정부와 선배 기상인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슈퍼컴, 수치예보모델, 기상위성, 레이더 등 각종 고가의 첨단 장비들을 모두 갖추게 되었고, 그 결과로 최근 기상예보 적중률은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요즘은 기상예보가 잘 맞다는 칭찬을 하는 분들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기상인으로서 참으로 가슴 뿌듯한 일입니다.

하지만 노벨과학상의 수상자들 면면을 살펴보면, 새로운 실험장치나 측정기기와 분석기기를 고안하여 자연현상을 규명한 분들이 수상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상관측장비들, 또한 수많은 의료분석기기와 화학분석기기를 중 어느 하나라도 우리나라에서 고안되었거나 제작된 것이 있는지요? 고가의 관측기기가 큰 관측오차를 내거나 고장이 났을 때, 우리 손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고장수리를 할 수 있는지요? 또 수치예보모델이 심각한 오보를 낼 때, 우리 손으로 그 모델의 오류를 고치고 개선할 수 있는지요?

우리나라는 기초과학의 기반이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기상분야만이라도 수치예보모델과 기상관측기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선도적 기상과학국으로 도약하도록 우리의 노력을 경주합니다. 창조과학을 중시하겠다는 새 정부의 출범에 즈음하여 '창조기상' 원년이 되는 계사년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우리 마을의 관광명소 '꽃자왈'



고경준 / 항공기상청 예보과

내가 태어나고 자라온 곳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인 제주 서귀포시의 무릉 2리다. 비옥한 토양의 광활한 평야와 꽃자왈이 아름답게 동네를 감싸고 있고 정개발, 왕개동산, 구남물 등은 생태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또한 무릉도원마을은 제주시와 서귀포로 진입하는 관문이기도 하다. 한라산 밀림지대에 인접한 이 지역엔 자연적으로 패인 웅덩이가 있어서 야생동물들이 서식해 포수들이 많이 찾게 되었는데, 대정현감이 이곳을 수렵처로 정하기도 하였다.

꽃자왈은 숲을 뜻하는 '꽃'과 수풀이 우거진 곳을 뜻하는 '자왈'을 합쳐 만든 제주 고유어로, 나무·덩굴식물·암석 등이 뒤섞여 수풀을 이루게 된 곳을 일컫는다. 화산이 분출할 때 점성이 높은 용암이 크고 작은 바위 덩어리 등으로 쪼개지면서 요철(凹凸) 형태의 지형이 생성된 것으로 용암지대에 분포하는 독특한 지형이다.

중산간에 위치하면서도 비교적 경사가 완만하고 해발고도가 낮아 평탄한 지대를 이루며, 토질은 점질토에 속하여 농경시대에는 흙을 이용해 도자기를 생산하였고 포도, 감귤, 마늘생산지로도 각광받고 있다. 또한 산림청이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한 꽃자왈 숲길이 있는 마을이다 보니 이름 그대로 '무릉도원'인 셈이다. 범죄 없는 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살기 좋은 마을, 자립형 마을로도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꽃자왈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열대 북방한계 식물과 한대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생태계의 보고다. 또, 아무리 많은 비가 내려도 빗물이 그대로 지하로 유입되는 토질을 가지고 있어 지하수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지하수가 풍부하고 보온·보습 효과가 뛰어나 많은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우리 마을 꽃자왈은 물과 풀숲이 우거져서 이루어진 곳으로, 어릴 땐 목장이 형성되어 소들의 천국이었지만 점차 소들이 사라진 지금은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현재 올레길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우리 동네에는 11코스인 꽃자왈길이 포함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5월이면 삼동이라는 포도 같은 열매가 무성하게 열려 어릴 적 학교에서는 삼동 따러 가는 날도 있었다. 그날이 되면 집에서 빈 도시락을 들고 다 같이 따러 가곤 했다. 삼동을 한 움큼 손에 쥐고 먹다 보면, 손과 입이 보라색으로 변하곤 하는데 포도보다 맛있고 새콤하기도 하다. 맛이 좋은 만큼 뱀들도 삼동을 좋아해서 나무에 매달려 있기도 하니 조심도 해야 한다. 그러나 요즘은 사람들의 발길이 많아져 삼동을 구경하기가 쉽지는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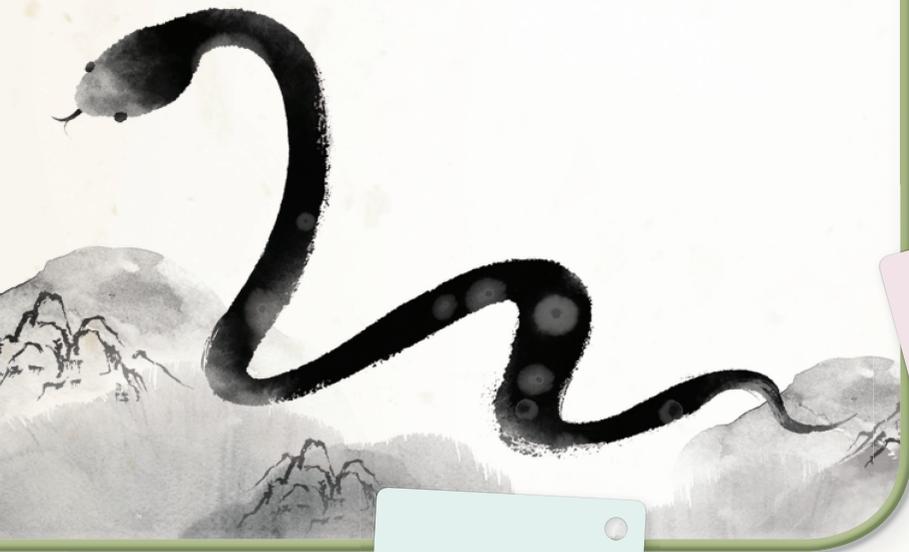
삼동과 함께 바나나처럼 생긴 줄갱이라는 먹음직스러운 열매 또한 인기가 있었다. 반이 씨로 구성된 벌어진 줄갱이를 입안에다 넣고 맛을 음미하면 머시멜로우 같은 맛이 난다. 정말 이 모든 것이 자연이 주는 천혜의 선물이 아닐까 싶어진다.

요즘 대세는 ‘힐링’인데, 꽃자왈은 산소 보급소이기도 하다. 언제부터인가 거문오름이 트레킹 코스로 유명해지면서 많이 훼손되어 이제는 예약을 해야지만 구경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 동네 꽃자왈도 삼림욕하기에 좋은 곳이다. 우거진 나무숲을 지나다 보면 몸이 자연적으로 치유됨을 느낄 수 있다. 나무들과 부딪치며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있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나도 가끔 지치고 힘들 때 이곳을 걷곤 한다.

나무숲을 계속 걷다 보면 어릴 적 소풍으로 자주 갔던 잔디밭이 보인다. 숲속을 걷다가 하늘이 흰히 보이는 잔디밭으로 나오면 또 다른 볼거리를 선사한다. 사방이 숲으로 뒤덮여 있는데, 이곳만 하늘이 열려있는 길이다. 소풍을 오면 그렇게 소풍이 많아 싫어했던 곳인데, 지금은 그 소풍이 보이지 않아 좀 아쉬워지기도 한다. 잔디밭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지만 바닥은 돌들로 이뤄져 있어 등이 아파지므로 눕지 않는 게 좋다. 가끔 운이 좋으면 한라산에서 뛰어놀던 노루가 마을까지 내려와 함께 사진도 찍을 수 있는 행운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올레길을 걷고 싶으시다면 11번 코스를 적극 추천해주고 싶다. 올레길 모든 코스가 아름답긴 하지만, 나의 고장 무릉 꽃자왈을 거닐면서 지친 심신을 치유하고 자연을 맘껏 즐기시길 바라며 이만 소개를 마친다.

계사년 뱀띠! 세대별 소원을 듣다!



포항기상대 김혜정
아들 이형우(13세)



초등학교의 마지막인 6학년이 됩니다.
중학교 가기 전에 친구들과 신나게 더 놀고 싶기도 하고, 영어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족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풀 옵션을 갖춘 최고 사양의 컴퓨터를 새로 갖고 싶습니다.

진주기상대 김윤숙
딸 윤성화(13세)



새해 소망은 무엇보다도 공부를 잘해서 제가 원하는 중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또한 엄마는 반대를 하더라도 전교회장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도 생겼으면 좋겠고, 집에 돈도 많이 들어와서 이사 때 생긴 빚도 어서 갚았으면 합니다.
또,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 일이 없어서 누구도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가족 모두가 건강하길 바라고 이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해길 바랍니다.

광주청 예보과 박정은
광주청 기후과 윤병영
자녀 윤상콤(1세)

꽃피는 3월, '기상인날' 을 즈음하여 우리 아기가 탄생합니다. "우리 상콤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기대하고, 행복한 웃음이 가득한 아이로 자라나길 바란다♥"
플리지지 않는 자연의 법칙에 맞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기상가족 여러분! 2013년엔 더욱 건강하고 상콤한 한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



창원기상대
김정길(25세)



여러 소원들 중에 무니무니해도 제일 첫 번째는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이 한해를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 조그마한 소원도 있는데요. 갤럭시S4가 나온다고 하는데, S사와 제휴를 맺어 희망하는 직원들의 휴대폰을 최신형으로 바꾸주면 급변하는 시대를 직원들이 잘 맞춰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ㅎㅎ!

또 기상관련 야간대학원 강사가 생겨, 업무와 병행하면서 능력향상도 할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산기상대
함영모(37세)



30대 중반에 맞이하는 밤의해~! 한해를 맞이하며 매년 바라는 소원과과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올해에는 세계의 평화와 국가의 안정...을 바라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아는 모든 이의 건강과 아픔 없는 삶... 그리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 작년보다 나은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로또 당첨도 있네요^^

응용기상연구과
황윤정(37세)



결혼을 하고, 애기를 낳고 보니, 새해 소망의 순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 2013년에 가정에서 바라는 첫째 소망은 아직 준비 중인 남편이 원하는 직장으로 가는 것이고, 둘째는 둘째 아이를 가지는 것입니다.

셋째는 기백이가 밝게 자라는 것. 개인적으로는 2012년에 새로 시작한 업무들에 허우적거렸으나, 2013년엔 연구에 매진하고, 더불어 영어공부와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2013년 밤의해는 원지나이의 소망이 좋은 결실을 이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응용기상연구과
장복수(49세)



세상은 선택의 여건을 각자가 마련하고 기준을 정해 나름대로 정의를 하면서 소신껏 삶을 영위하라고 합니다.

인생이란, 힘든 역경을 딛고 행복을 무한한 꿈으로 생각하며 가깝고도 먼 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행운과 복을 평등하게 베풀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나갔으면 합니다.

제주청 예보과
이영철(49세)



2012년도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새해를 맞아 특별하게 원하는 소원이 있다기 보단, 올해에도 가족들 모두가 건강하고 무탈했으면 하는 게 가장 큰 바람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취업준비에 바쁜 아들이 새해엔 꼭 원하는 곳에 합격하면 무척 기쁠 것 같습니다. 타지에서 대학 생활 중인 사랑하는 딸도 학업에 매진하여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기관리에 힘써서 몸짱을 만들고, 직장일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충실히 하겠습니다.

2013년, 이날만은 꼭 기억할거야!

- 03.04_ 첫 학부형 되는 날
- 03.05_ 나의 사랑, 그녀에게 프러포즈하는 날
(부산청 기획운영팀 김정철)
- 03.25_ 보너스 나오는 날
- 03.31_ 성형수술 부기 가라앉는 날



- 04.01_ 입사 동기 제주도 모임(처로로클럽 2차 오픈게시)
- 04.14_ 홀로 자장면 먹는 날
- 04.21_ 서해상에서 최대크기의 광어를 잡는 날
- 04.29_ 생애 한번뿐일 첫째 딸 돌(포항기상대 황현주)



- 01.01_ 매년 다이어트 계획 세우는 날
내 몸에서 니코틴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날
- 01.05_ 솔로로 맞는 네 번째 생일
- 01.18_ 만으로도 30대 되는 날(포항기상대 김태형)
- 01.23_ 2년간의 치아교정 끝내는 날



- 05.01_ 7급 공무원 된지 7년째 되는 날
(포항기상대 이보연)
- 05.05_ 아들의 밝은 웃음을 사진 속에 담는 날
(안동기상대 조은주)
- 05.06_ 새로운 나를 찾아 여행가는 날
- 05.11_ 열 번째 결혼기념일(청주기상대 박지선)



- 02.06_ 태어난 지 10000일 되는 날(레이더운영과 정연화)
- 02.09_ 라식수술해서 광명 찾는 날
조카에게 처음으로 세뱃돈 주는 날
- 02.12_ 우리 셋째 태어나는 날
- 02.28_ 새 보금자리로 이사 가는 날(안동기상대 하태룡)



- 06.03_ 우리 여봉이와 1주년 되는 날
- 06.10_ 용인에서 청주까지 자가운전 해보는 날
(청주기상대 이경)
- 06.18_ 첫 보직 받는 날
- 06.30_ 사랑하는 대장님과 작별하는 날(청주기상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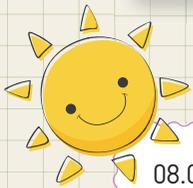
07.05_ 사랑하는 엄마 생신, 모녀 첫 여행을 떠나다
 07.13_ 사랑하는 그녀와 평생을 약속하는 날
 07.28_ 드디어 비키니에 몸이 들어가는 날
 07.31_ 적금만기일! 이제 시집가자!



11.06_ 평생 연인이랑 만난 지 5555일 되는 날
 11.11_ 11kg 감량 성공기념으로 뽀뽀로 왕창 먹는 날
 11.19_ 사랑하는 아버지의 환갑
 11.26_ 기상청 입사 33주년 기념일



08.01_ 식스팩 만들기에 성공해 해변가를 걷는 날
 08.08_ 유학 간 딸이 귀국하는 날
 08.15_ 허리둘레 32인치로 줄여서 몸짱되는 날
 08.31_ 태풍 피해 없이 8월을 마무리하는 날



12.08_ 제주도 첫눈 예보하는 날
 12.10_ 고향으로 인사발령 돼 남편 만나러 가는 날
 12.20_ 아들이 태어난 지 1000일 되는 날
 (대전청 기획운영팀 안지현)
 12.21_ 아마추어 테니스대회 우승하는 날
 12.25_ 남친과 함께하는 날(제발 솔로탈출하자!)
 손수 만든 목도리를 여자친구에게 선물받는 날
 (지금은 솔로..ㅠㅠ)
 12.31_ 꽃다운 20대 마지막 청춘을 불사르는 날



09.08_ 어머니와 아내의 생일이 같은 날
 09.14_ 로또 당첨되는 날
 09.18_ 추석 황금연휴가 시작하는 날
 09.28_ 아내와 첫 만난 날 21주년 행사로 1박2일 여행



10.03_ 옆자리 박모 주무관님(노총각)의 결혼식 참석
 10.19_ 내 생일~ 나만 행복하면 돼!
 10.28_ 결혼 30주년을 맞이해 해외여행 하는 날
 10.31_ 제주도내 모든 개방된 오름 답사 완료!



기상청이 한기한 새해가 되길 바라줘



오현태 / 세계일보 기자

“카라·바렌즈해 해빙이 녹으면 대기 온도가 올라 갑니다. 이 경우 우랄산맥 동쪽에 상층 기압능이 발달 하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시베리아 고기압 발달 에 영향을 끼칩니다.”

대체 이걸 무슨 말인가! 이럴 때마다 난 ‘멘탈 붕괴’ 에 빠진다. 지난 겨울 추위의 원인이었던 북극진동도 아직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북극해빙인가보다. 예보관·통보관님들에게 묻고 또 물어서 간신히 기사를 작성하고 나서도 추위의 원인은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다. 그저 한 가지 생각만 머리에 스친다.

“올 겨울도 기상청이 바쁘겠구나.”

나는 사회부 소속으로 경찰서를 담당하면서 기상청 도 맡고 있다.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두 출입처 사이에도 공통점은 존재한다. 직원들이 한가할수록 국민은 좋다는 점이다. 경찰이 바쁘면 사건사고가 많다는 의미다. 기상청이 바쁘면 날씨가 평년과는 다르다는 뜻이다. 이래저래 국민이 힘들 수밖에 없다.

2012년은 기상청이 많이 바빴던 한 해로 기억될 것 같다. 평년에는 볼 수 없었던 날씨가 자주 나타난 탓이다. 2월에 몰아닥친 한파는 북극진동의 개념을 국민에게 널리 알린 계기가 됐다. 황사 없이 봄이 조용히 지나가나 했지만 일찍부터 시작된 더위는 여름 내내 한반도를 가마솥으로 만들었다. 더위가 좀 사라지나 싶을 때 찾아온 태풍은 5개나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다. 지금은 겨울의 초입부터 시작된 강추위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푹푹 얼게 만드는 중이다.

나 역시 덩달아 분주했다. 더위·추위·태풍의 원인과 전망을 기사화해야 했다. 매일 ‘덥다, 춥다, 비 온다’는 내용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수 없으니 조금이라도 새롭게 써야 한다는 생각에 골머리를 앓았다. 각종 현장을 누비는 사건기자로서 더위와 추위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모습을 스케치하는 것도 내 몫이었다. 숨 가쁜 한 해를 보낸 덕분에 기사 훈련을 많이 했지만 빗소리를 들으며 추억에 잠기거나 첫눈을 맞으며 설레는 즐거움은 누릴 수 없었다.

기상청과 내가 바빴으니 국민은 힘든 한 해를 보냈을 것이다. 55년만의 한파가 몰아친 2012년 2월, 노량진에서 만난 노점상들은 추위에 울고 손님이 없어서 또 울었다. 준비한 재료가 강추위에 얼어서 음식을 만들기가 어려웠다. 밖에 나온 사람들은 추워서 걸음을 재촉하며 노점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으니 해가 떨어지기도 전에 장사를 접어야 했다. 인력시장에 나선 일용직 노동자들은 불황 때문에 줄어든 일거리가 한파 때문에 더 줄어서 울상을 지었다.

“속옷까지 다 젖은 것 같아.”

지난여름 무더위 때 스케치 기사를 작성하면서 친구에게 얼마나 덥냐고 물었더니 나온 대답이다. 다소 적나라한 표현 때문에 기사에 넣지는 못했지만 더운



식재료 얼어붙고 손님마저 없어 한숨만

매서운 한파와 싸우는 노점상·인력시장 르포

“학교살아 다니니까 한 분이든도 별리고 나왔는데, 이렇게 추고 손님도 없으니 평소보다 열개 추데 손님도 없겠냐”며 정보를 잡는 손님을 부추기며 말했다.

노점상의 근처 노점상은 모두 30대. 그러나 아예 장사를 하지 않거나 주위를 못 걷고 오던 환경에 살수한 노점상 10명이 남았다. 장사를 주유하는 이들도 딱딱거리는 딱딱거리는, 주변 없다. 생계를 위해 출근을 하고 나선 노점상 대부분이 사실상 ‘개집유람’ 상태였다.

이 주에서 노점상을 한 지 20년이 넘었다는 문모씨에게는 정보를 알려주고 있었다. 손님의 발걸음이 두 걸음 떨어진다고. 손씨는 “오 해살이 있어 4백 4십여 집을 나세 노점상도 재료를 준비했지만 아예와 비슷하게 손님이

“문 닫는게 남은 장사지만 한 톨이라도 더 벌어야죠”

인감 푼다 인력시장 ‘한바탕’

간이 생겨버린 송씨가 한숨을 내쉬었다. 작은 스토브 하나에 의지해 연 밥을 끓여던 송씨는 “장기 때문에 계속 끊지도 못한다”며 “그런 걸 미안도 더 벌려면 장사는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년의 추억을 많이 탄다는 김모(48·여)씨는 올해로 노점상을 시작한 지 4년이 됐다. 김씨는 “고려도 손님이 없으면 좀 혼란스러워도 된다. 이렇게 온다 있으면 김바탕에 앉아 있는 것보다 더했다”면서 “아침에 준비한 재료는 놓는 것도 불사르다 버리고 이면저런 힘



정도를 맛갈스럽게 표현한 말이였다. 시민들은 며칠째 이어지는 열대야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출근길에 나서 ‘거대한 썩뜸’ 같은 버스와 지하철에 시달렸다. 아침부터 ‘육수’를 뿜어내는 사람들과 맨살이라도 닿으면 불쾌지수가 급상승했다.

더위 끝에 몰아닥친 태풍은 ‘신문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강풍에 유리창이 깨지는 것을 막으려면 물을 묻힌 신문지를 창문에 붙이면 된다는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퍼졌기 때문이다. 이리다 신문 구독부수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기자들 사이에서 나올 정도로 국민은 열심히 신문을 붙이는 수고를 감당했다.

가장 고생이 심했던 사람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사는 서민이나 빈곤층이었다. 이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더위와 추위를 견뎌야 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쪽방촌 주민들이다. 두 사람이 눕기도 어려울 정도로 좁디좁은 쪽방은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아 날씨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나이가 많은 쪽방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환경이다. 유독 춥고 더웠던 탓에 쪽방촌 주민들을 자주 취재하면서 어느 한 계절도 편하게 지내지 못하는 모습에 가슴 한 편이 빠근해졌던 기억이 난다.

“애기 되냐?”
기자가 된 지 1년이 조금 넘는 내가 선배들에게 가

장 많이 들은 말 중 하나다. 어떤 사건이나 사실에 대해 보고했을 때 ‘기사화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묻는 말이다. 얘기가 되면 될수록 기사의 크기가 커진다. 2012년 1월부터 기상청 출입을 시작해 겨울-봄-여름-가을을 지나 다시 겨울을 맞이했다. ‘얘기되는’ 사계절을 보내면서 많은 기사를 쓰고 많은 경험을 했다. 두 번째 맞는 겨울도 이미 많은 기사를 쏟아냈고, 남은 겨울도 앞선 사계절 못지않게 기사거리가 많은 시기가 될 것 같다.

새해에는 항상 이런저런 기대를 하게 마련이다. 2013년 계사년(癸巳年)은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돼 더욱 바라는 것이 많은 한해다. 나도 이 자리를 빌려 ‘기대 행렬’에 동참해 본다. 2013년은 그 어느 때보다 기상청 직원들이 한가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 평년의 날씨가 1년 내내 계속돼서 사계절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경제가 어렵다는 전망이 많은데 날씨까지 안 좋으면 우리들 삶이 너무 팍팍해질 것 같다.

기상청이며,
2013년은 ‘한가해(海)’에서 헤엄쳐라! 쪽~



하늘이 맺어준 아름다운 인연



김경재 / 동작소방서

현대인들은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다시 자리에 누울 때까지 쉴 틈도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정신없이 살아 가는 중이다. 하지만 바쁘게 쫓는 방아에도 손 놀 틈이 있다고 했던가? 지하철 안, 촌각을 다투는 바쁜 출근 시간 중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뉴스 혹은 날씨 애플리케이션 등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그 날씨와 뉴스를 보면서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하는 것이다. 아마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세상 돌아가는 소식과 날씨가 하루를 보내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언젠가 너무 급하게 나와서 일기예보를 확인하지 않고 출근한 날이 있었다. 집을 나오면서도 시커먼 구름이 가득한 하늘을 보며 집에 가서 우산을 가져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다. 결국 그 날 하루를 비가 갑자기 쏟아질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불안 속에 하루를 보내게 되었고, 그 덕에 진행되는 일도 좀처럼 마음대로 풀리지 않았다. 일기예보를 보지 않아 아침부터 온 신경이 날씨로 쏠렸기 때문이다.

이런 내 경험만 봐도 날씨는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나의 동료, 선배, 후배인 소방관들의 업무에도 날씨는 정말 중요한 일부가 아닐 수 없다. 봄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습도가 낮아 산불 걱정이 들고, 해빙기에 따른 수상안전사고와 낙상사고 걱정도 든다. 또 여름에는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과열로 인한 화재와 장마철 수해피해가 걱정이다. 가을 단풍철엔 등산객이 집중돼 일어날 수 있는 산불과 말벌 출몰에 대한 걱정, 그리고 겨울에는 난방기에 따른 전기화재와 폭설 등의 걱정이 앞선다. 이렇게 1년 내내 소방관의 머리에서는 날씨로 인한 피해에 대한 걱정이 가시질 않는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전 세계가 예기치 않은 대형 재난에 신음하기도 하고, 계절의 구분도 많이 사라졌다고 한다. 하지만 걱정 중 다행으로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뚜렷하다. 덕분에 우리 소방관들은 계절별 날씨의 특성과 그날의 일기예보를 숙지하여 혹시라도 발생 가능한 사건사고에 대처할 수 있다. 만약 일기



예보가 없거나 틀린 정보가 제공된다면, 소방관들은 수많은 장비들 중에서 제때 필요한 장비를 빠르게 준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출동하는 소방대원들의 안전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일기예보는 제2차, 제3차 재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제2의 소방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1년 여름, 우리는 엄청난 폭우로 인해 서울의 중심부와 한강 이남의 일부분이 물에 잠겨버리는 재난이 발생했다. 내 기억으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인명피해도 발생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TV나 신문을 통해 이 소식을 듣게 된 사람들은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기상이변에 당황했고, 도시 전체가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비정상적으로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해방지 관련 시스템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고, 복구 작업에 지체 없이 투입될 수 있었다. 덕분에 많은 피해를 남긴 이 재난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 내에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인간, 특히 소방관은 하늘의 뜻인 날씨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단 하루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없다. 더욱이 현대의 천재지변은 세력과 피해정도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하늘의 뜻을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하늘이 맺어준 소방관과 기상청의 인연으로 오늘도 국민들은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우리 소방관들이 기상청의 일기예보를 외면할 수가 없는 이유이다.



‘신생아 살리기 모자 뜨기 캠페인’, 어렵지 않아요~~



김은영 / 관측정책과

“이게 뭐예요?” 내가 모자 뜨기 키트를 풀어놓자, 몇몇 직원들이 관심을 보였다. “신생아 살리기 모자 뜨기예요. 별거 아니지만 이 모자가 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하네요”라고 설명을 해주자, “저도 하고 싶은데요?”라며 같이 신청해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도 있었고, “하고 싶긴 한데, 뜨개질은 웬지 어려울 것 같아요”라며 고개를 흔드는 사람도 있었다.

내가 신생아 모자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바로 작년 부터다. 두 아이의 엄마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생각보다 많은 어린 아이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으며, 기초적인 돌봄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무척이나 가슴이 아팠다.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주관하고 있는 ‘신생아 살리기 모자 뜨기 캠페인’은 올해로 6회를 맞는다. 이 캠페인

은 영유아를 살리기 위해 털모자를 직접 떠서 세이브더칠드런의 해외사업장에 보내주는 참여형 기부 캠페인이다. 해마다 이곳에서 발표하고 있는 ‘어머니가 되기 좋은 나라’ 순위가 실린 「어머니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 200만 명의 아기들이 태어난 날 바로 사망하며, 400만 명의 신생아들은 생후 한 달 안에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죽어가는 신생아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폐렴과 설사, 말라리아와 같이 쉽게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다.

죽어가는 신생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어렵고 거창한 것이 아니다. 뿔줄을 자르는 살균된 칼, 저렴한 폐렴 항생제, 그리고 저체온증을 막아줄 수 있는 털모자 등 간단하고 저렴한 방법으로도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신생아용 털모자로 아기의 체온을 보호해주면서, 엄마의 체온과 심장박동으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갯거루 케어’를 한다면 신생아의 사망을





약 70%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시작된 게 바로 ‘신생아 살리기 모자 뜨기 캠페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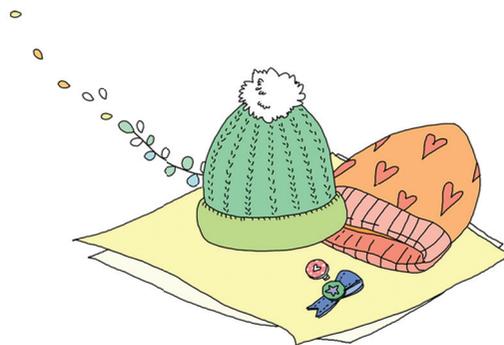
이렇게 작은 정성을 담아 만들어진 털모자는 아프리카에 위치한 코트디부아르, 중앙아시아의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9개 나라로 보내진다. 아프리카 처럼 더운 나라에서도 털모자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곳의 평균기온은 높지만 밤낮의 기온차가 매우 심한 게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저체온증이나 미숙아로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엔 체온조절 능력이 저하돼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털모자를 쓰게 되면, 아기의 체온을 약 2℃ 정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 저체온증 방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사실 대바늘로 뜨개질을 한다고 하면 마치 기술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의 노력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자 뜨기다. 처음 이 캠페인을 접했을 땐,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대바늘뜨기 해본지도 오래됐고 시간도 없는데 언제까지...’라는 걱정을 안고 시작하게 됐는데, 역시 시작이 반이라고 신청하고 키트를 받는 순간 손에서 놓지 못할 정도로 빠져들게 됐다.

특히, 올해는 관측기반국의 여러 직원들과 같이 할 수 있어서 그 기쁨이 몇 배는 더했다. 점심시간에 모여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선 서로 알려주고 인터넷 교육

동영상을 보며 배우기도 하다 보니, 하나하나 완성될 때의 그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직원들과의 동료애가 전보다 더 커지게 된 것도 물론이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거창해 보여서 왠지 가까이 하기엔 멀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이렇게 작은 정성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니 마음이 부자가 되는 것 같아 이 추운 겨울도 따뜻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다.

혹한기인 요즘 같은 땐,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을 따뜻하게 단련시켜야 한다고 본다. 마음 따뜻한 기상청 사람들 중 이 캠페인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점심때마다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같이 모자 뜨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어떨까? 나눔은 함께할수록, 또 나눌수록 더욱 커지는 거니까 말이다.



뜻밖의 선물



전은지 / 보령기상대

“까~~~악!!!”

기상청 홈페이지 합격자 명단을 보고 온 집안을 뛰 어다니며 기뻐하던 때가 바로 엇그제 같은데, 벌써 ‘기상서기보 시보’가 아닌 ‘기상서기보’가 된지도 3개월이 되었다. 보령기상대로 첫 발령을 받았을 때,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외에는 모두 남자 직원이라고 해서 걱정이 앞서기도 했다. 하지만 다행이도 따뜻하게 맞아주 셔서 금세 적응할 수 있었다.

근무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유독 기억에 남는 날을 꼽으라면 작년 11월 5일! 이제 막 기상서기보가 되었던 날이다. 그날 난 야근이었고, 서해바다엔 무섭 게 낙뢰가 치고 있었다. 여름엔 태풍 세 개가 연달아 찾아와 날 행복하게(?) 해주더니, 오랜만에 찾아온 이 용감무쌍한 낙뢰는 마치 남자친구를 만난 것처럼 가슴이 방망이질 치게 했다. 제발 피해가라며 두 손으로 저어도 보았지만, 낙뢰는 자꾸 다가오기만 했다. 그래서 낙뢰 유의문자를 관련기관에 보내고, 대전 예보관 님과 통화하던 중 갑자기 큰소리가 나더니 전등스위치 에 불꽃이 튀고 전화가 끊기는 것이 아닌가! 사무실을 둘러보니 인터넷도, 영상화면도 먹통인 상태. 어떻게 처음 맞는 낙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정말 잊을 없는 밤 9시 55분이었다.

장비담당 주무관님, 대전청 예보관님 등 내 핸드폰 은 쉴 틈 없이 걸고 받기를 반복했다. 잠시 후 관사에 계시던 대장님, 퇴근하셨던 주무관님들이 달려와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하셨다. 한숨 돌리며, ‘이제 곧 고쳐

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UPS에 문제가 생겨 쉽게 복구가 되지 않았다. 그 동안 나는 관측과 동네예보 통보 문 등을 대전청에 부탁했고, 시보를 뎀 기념으로 떡을 돌리지 않았으면 쫓겨났을 거란 농담을 들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야속하기만한 낙뢰를 관측하 는 동안 초조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밤 11시 33분. 드디어 복구가 완료되었다. 늦은 시 간인데도 달려와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배 응을 하고, 뒷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낙뢰는 계속되었고 퇴근까지는 8시간이나 남아있었다.

24시간 같았던 근무를 마치고 ‘이제 좀 쉬어야지’하 며 누었지만, 쉽게 잠자리에 들지 못했다. 이렇게 기 상청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던 적이 있었던 가! 그러던 중에 사무실에서 호출이 왔고, 부랴부랴 갔더니 감사하게도 시보를 뎀 기념파티를 해주셨다. 정 말 이렇게 챙겨주신 분들 덕분에 무사히 시보를 마칠 수 있었던 것 같다. 따뜻한 마음이 담긴 맛있는 음식 을 먹다 보니, 전날의 놀란 마음이 그제야 진정되었다.

이제와 돌아보니 그때의 낙뢰는 내게 선물이 아니었 나 싶다. 그 후, 업무에 좀 적응이 됐다고 소홀해지려 할 때마다 이때의 일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게 된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삼는 경 우가 드물다는데, 좋아하는 하늘을 바라보며 일할 수 있는 난 정말 ‘행운아’이다. 이제 정식으로 기상청 공무원 이 되었으니 더욱더 공부하여 존경받는 예보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

모두 덕분이지요!



오용해

안녕하십니까. 2013년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오용해입니다. 그동안 고운 분들을 만나 좋은 인연을 쌓아가며 값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일로써 만난 사람들입니다. “크든 작든 자기 일을 장악하고(掌事), 온 힘을 다해(奉事), 일의 결과를 고마워해야(感事)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수는 단지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닌, 타인의 기억에 거울처럼 비추어지는 것’을 말하고, ‘자신의 이름은 타인이 부를 때 비로소 살아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을 나를 있게 한 건, 나의 이웃들이 나를 부를 때! 그곳에 내 거울, 내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면, 이름 없는 풀보다도 못한 인생이었겠지요.

‘거지같은 부자’로 살지 말고, 동료직원의 불편과 어려움에 비굴한 방관자가 되지 마세요. 서로 배려하고 같이 아파한다면, 함께 물벼락을 맞아도 세상은 환해질 수 있습니다. 작고 허술한 무관심만 보인다면 ‘형편없는 인간’이 됩니다. 그러니 동료가 다가오기 전에 내가 먼저 맞이하러 나가는 ‘착한 바보’가 되는 것이 좋겠지요.

저는 일도 사람 됨됨이도 부족했습니다. 정말 별 거 아닌 저였음에도 잘난 척을 하고 그랬습니다. 대체로 야단을 많이 맞았는데, 그러다가 한두 차례 칭찬을 들을 때면 나만 열심히 일한 줄 아는 오만도 가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조직의 한사람에 불과한 거였지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발전해가는 기상청 행운열차에 쉽게 올라탔습니다. 남들처럼 쌀, 연탄, 약값을 벌기 위해, 또 아들, 남편, 아빠, 형 노릇을 위해, 색동옷 입고 울면서, 울면서... 그렇게 춤을 추다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주제에 큰 행운이었습니다.

아침 출근에 들떠 미칠 정도로 좋아 흥분했던 시간을 가진 것도 큰 복이었지요. 그땐 뚜렷한 공직관을 가져서라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보니 보고픈 동료들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가 정말 별 것 아님’을 알게 해준 그 때 그 사람들 말이죠.

누군가 나에게 “기상청에 온 보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실명을 말할 순 없지만 선배, 동기, 아직도 짝사랑하는 후배님들과 맺은 인연입니다!”라고요. ‘바보가 되는 길’을 알게 해준 선후배 ‘착한바보’들이,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늘 고마워하고 부끄러워하면서, 깃털처럼 살겠습니다. 공로연수를 배려해주신 청장님, 차장님과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신 바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기상청 만세!”

생애 첫 여권을 들고 Go! Go!

— 호주기상청 방문기



박순우 / 순천기상대

처음으로 발급받은 여권을 들고 떠나는 첫 해외여행! 얼마나 들뜨고 설레었는지 모른다. 작년 10월 15일부터 6일간 기상청 지원으로 호주의 멜버른에 다녀왔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 사회, 그리고 행동양식을 직접 느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멜버른으로 가기 위해, 기쁨 반 설렘 반으로 출국수속을 하고 직원들과 함께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11시간 동안의 긴 비행을 마치자, 가이드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였다. 가이드가 아직 미스(miss)여서인지 더욱 기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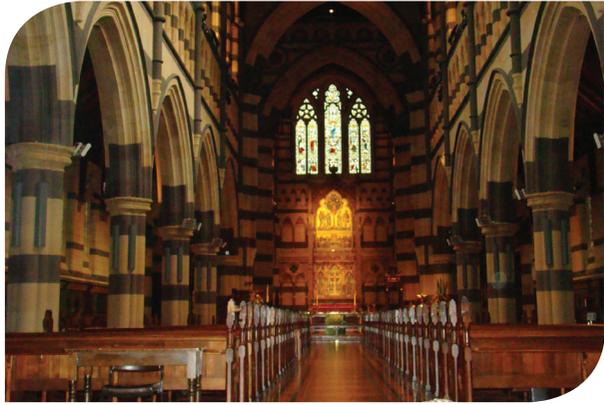
첫 날엔 호주기상청을 방문하였다. 양국협력 추진 현황, 7차 회의 개최 안 논의와 실무급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호주기상청 사무실, 전산실 등도 견학하였다. 호주기상청 위험기상예보는 국가에서 기후, 수문, 기상에 대한 예보, 경보 수행업무도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기상청은 7곳으로 각 주마다 한 곳씩 있고, 남극해까지 수문해상을 맡고 있다고 한다. 또 놀라운 것은 관측업무 자원봉사요원이 6,500명이라는 사실

이다. 보수 없이 자기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인지 호주 국민들의 기상만족도가 91%나 될 만큼 기상청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 같았다.

우리나라도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호주처럼 자원봉사자가 많아, 특히 겨울철에 모든 지점에서 적설관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상상을 해보았다. 그렇다면 우리 기상청도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다. 또한 호주의 실시간 인터넷 기상서비스 비율은 99.5%로 대단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홈페이지 방문자수는 6천4백만 명 이상,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되는 자료는 약 57만 건으로 많은 자료를 국민들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이어 다음날엔 빅토리아 주 지방기상청을 방문하였다. 먼저 내 눈에 펼쳐진 초원광장의 넓은 농장 부지





가 정말 놀라웠다. 광활하고 아름다운 풍광에 취해 있는데, 어느 시골 아줌마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놀랍게도 빅토리아 주 지방기상청장님이셨다. 겸손하고 검소하시며, 부드러운 미소와 꾸미지 않은 외모로 인해 더욱 친근하게 느껴졌다. 또 우리를 위하여 고층관측 라디오존데를 준비하여 띄우는 것을 직접 보여 주셨는데, 한국 기상청과 비슷한 것을 사용하고 있었고 일주일 간격으로 관측을 수행한다고 했다. 특이하게 라디오존데에 주입되는 헬륨은 지하로 연결하여 풍선에 채웠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면 안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엔 가이드와 함께 즐거운 관광투어가 시작되었다. 우리의 골드미스 가이드가 호주를 먼저 소개해줬는데, 호주 땅은 우리나라의 35배일만큼 넓은 대륙 초원과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나라라고 전했다. 또한 복지국가로서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로도 유명하다고 말했다.

먼저 '그린피스언스 국립공원'을 둘러보았다.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총면적이 16만 7000ha로 중서부에 위치한 빅토리아 주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이라고 한다. 그 곳에서 절벽, 호주 고유의 식물과 조류, 희귀 동물도 볼 수 있었다. 그 중 책과 TV에서만 보던 코알라가 정말 신기했다. 하루 중 20시간을 자고, 나머지 4시간 동안엔 먹고 소화를 시키면서 휴식을 취한다고 하는데, 야근으로 잠이 부족한 내게는 정말 부러운 모습이었다.

또, 많은 관광명소 중 '세인트 폴스 대성당'은 고딕 양식의 건축물로 플린더스 스트리트역 정면에서 위엄

가득한 모습을 뽐내고 있었다. 3개의 첨탑 외에 내부에 있는 스테인드글라스와 파이프 오르간 등도 눈여겨 볼만했다.

호주 문화는 검소하고 여유로운 문화를 느낄 수 있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자동차 경적소리를 듣기 힘들고 속도를 항상 준수했다. 자전거를 탈 때는 꼭 헬멧을 착용하며, 건널목 신호등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나라도 호주의 여유로운 마음과 교통법규를 본받았으면 한다. 하지만 선진국이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길거리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흡연하는 모습이 보이고 담배 휴지통이 곳곳에 놓여있어 쓸쓸하게 만들기도 했다.

생애 처음으로 가게 된 해외여행이었다. 광활하게 펼쳐진 초원과 자연이 만들어준 기이한 사막해안... 그 모든 것이 아름답고 신기했던 첫 호주여행! 내게는 소년처럼 설레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좋은 경험이었다. 조금이라도 젊은 시절에 여권을 만들어 진작 좀 다녀볼걸 하는 아쉬움이 들었지만, 돌아오는 비행기에선 구수한 된장찌개가 생각났다.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먹는 이 구수한 된장찌개를 앞으로 몇 그릇을 더 먹을 수 있을까? '빨리빨리'에 지쳐있는 그대들이여~ 여권을 들고 지금 당장 'Go Go'하라!

강원청, 너희들은 진정으로 용감했었다!

김기현 / 원주기상대

기상인의 끼와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어울림 마당인 「슈퍼스타 KMA」가 열린다는 소식에 강원청 식구들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올해도 많은 기상인들이 참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그래, 우리도 멋진 모습을 보여주자!’라고 생각하게 됐고, 그렇게 우리의 용감한 도전이 시작되었다.

[목표는 1등이다!]

우리의 목표는 인기상도, 동상, 은상도 아닌 금상 단 하나였다. 하지만 첫 회의를 하는 순간부터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도대체 뭘 해야만 모두가 즐길 수 있으면서도 1등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긴긴 회의동안 수많은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 중에서 엄기철 대장님의 탁월한 아이디어에 모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다. “하중훈 주무관! 자네 개그맨 박성광 님이었으니 ‘용감한 녀석들’ 하는 거 어때?”

[가사는 밤에 써야 제 맛]

개그콘서트의 인기코너인 ‘용감한 녀석들’로 결정된 후, 공감 형성을 위해 기상인의 특성을 살린 노랫말과 대본이 필요했다. 낮에는 근무, 밤에는 작사와 대본 작성! 강원청의 용감한 녀석들은 그렇게 밤마다 남자 셋이 머리를 맞대면서 시작되었다. 이제와 하는 얘기지만, 칙칙한 남자 셋이 더 이상 모이지 않아도 되니 아주 좋다! “와~ 해방이다!”

[내 생애 첫 녹음]

가사가 완성되자마자 우리는 녹음 작업에 착수했다. 속초에서부터 먼 길을 달려 와준 배철호 주무관의 폭풍 같은 Rap과 아마추어임을 의심케 하는 대장님의 환상적인 노래실력! 덕분에 순조롭게 녹음이 마무리되었고, 믹싱 작업이 끝난 결과물을 들었을 땐 환호를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야근과 피로도 우리 강원청 녀석들의 열정을 막을 순 없었다는 말씀!

[Let's Dance]

음악이 있으면, 춤이 있어야 하는 법. 노래를 반복해서 계속 듣다보니, 서로 눈만 마주쳐도 쿿가에 저절로 음악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가사에 맞춘 춤동작을 고안해내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다행히도 댄스동아리 출신인 하중훈 주무관이 쉬우면서도 신나는 안무를 만들어주었다.

[우리는 슈퍼스타 KMA]

드디어 본 공연 날. 다행히 큰 실수 없이 무대를 마쳤다. 시상식이 마무리되어가는데도 호명되지 않자, 유쾌한 도전으로 만족하며 박수를 보내려는데 “영예의 금상! 강원청 녀석들!”이라는 소리가 들렸다. 정말 그날의 감동과 떨림이 후기를 작성하는 지금까지 이어지는 듯하다. 평범한 사람들이 모이면 추억을 만들고, 특별한 사람들이 모이면 역사를 만든다고 한다. 평범한 우리들을 특별하게 만들어준 기상청 동료들과 「슈퍼스타KMA」 멤버들에게 한 마디 전하고 싶다! “사랑합니다~♥”



「2012 슈퍼스타 KMA」 참가기

박미용 / 고산기상대



양진호, 김근범, 김세준, 강동훈, 박미용, 김화진, 김영수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우리는 하늘입니다~!”

우리의 팀명 ‘하울림’은 하늘을 울리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다. 「슈퍼스타 KMA」를 맞이하여 기존의 노래, 댄스, 콩트 등에서 벗어나 색다른 장르에 도전해보자며 일곱기상인이 모이게 되었다. 취미생활로 드럼을 배운 강동훈 주무관의 추천으로 접하게 된 난타! 예전에 공연을 봤던 난 칼과 도마를 두드리는 상상을 했는데, 칼은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난타북으로 대신하기로 했다.

처음 기초적인 박자를 배운 후 동작연습을 했는데, ‘큰일이다. 이걸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물밀듯이 들었다. 동작도 제각각, 박자도 제각각인 것이었다. 음악에 동작을 맞춰야 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그런 것이 당연한 게, 복체 한번 잡아본 적 없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다.

근무스케줄을 서로 맞추기가 힘들어, 각자가 기상대와 집에서 이불을 두드리며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많은 연습을 했다. 우리 모두 잘하지 못하는 분야에 도전했기에 더 열심히 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노력이 효과가 있었는지 어느새 각각의 동작들이 갑자기 하나가 되기 시작했다. 신기한 점은 혼자서 할 땐 틀리기 일쑤인데, 모두가 같이 하니 오히려 맞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역시 이것이 단합의 힘인 것을 새삼 느꼈다. 또한 「슈퍼스타 KMA」 참가준비를 하면서, 현업근무로 인해 서로 왕래할 수 없었던 직원들끼리 돈독한 친분을 다질 수 있게 된 것도 참 좋았다.

공연결과 우리가 받은 상은 참가상이었다. 다른 상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이 들긴 했지만, 시작은 다 그런 것 아닌가! 살아가면서 경험해보지 못할 난타를 배워본 것 자체가 값진 일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제주, 고산, 성산, 서귀포 모두가 한마음이 돼 함께했던 이 공연은 앞으로도 계속 소중한 추억으로 남게 될 것이다.

며칠 전, 연습할 때 양해를 구하곤 했던 어린이집에서 공연 의뢰가 들어왔다. 「슈퍼스타 KMA」는 끝났지만, 우리들의 ‘행복바이러스’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제주성 난타팀, 파이팅!”



V.I.P.

Very Important Place에 가다



허정필 / 대전 목양초등학교



작년 12월 27일, 녹색성장위원회 기자단으로부터 특별한 초대를 받았다. 바로 우리나라 기상을 최종적으로 담당하는 서울 기상청 방문에 관한 것이었다. 기상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지난 수업 때 기자님께서 가르쳐주신 '가장 좋은 취재 방법은 인터뷰이다'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분들을 만나서 무슨 내용의 인터뷰를 할까'라는 기대에 부풀었다.

기상청에 들어가니, 마치 내가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느낌이 들었다. 기상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카드를 '탁' 대면 열리는 보안문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날씨가 우리나라의 모든 것과 연결돼 있는 만큼 중요하기에 설치된 문인 것 같았다. 그 보안문을 통과하면서 기상청으로의 여행이 시작됐다.

맨 처음엔 대변인실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대변인님을 만나 환영인사를 듣고 난 후 홍보동영상을 보았다. 홍보동영상에는 '기상청은 곱하기, 나누기를 한다'라고 나왔다. 여기서 말하는 곱하기의 뜻은 산업과 날씨정보가 만나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는 것이고, 나누기의 뜻은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의 선진기상시스템을 전수하면 함께 공존하는 지구촌을 이룰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전해 주셨다.

그 다음에 예보관님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았다. 그곳에는 1분마다 한 번씩 종합기상정보가 나온다고 한다. 뉴스에 나오는 날씨정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다. 슈퍼컴퓨터의 예측도는 40% 정도인데, 예보관님의 손을 거치면 90% 정도된다고 하셨다. 역시 기계의 능력이 사람의 능력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기상시스템으로는 100%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100%라는 수치는 신을 이기는 것이라고 한마디 덧붙이셨다.

이어서 화상통화로 각 지방기상청 예보관님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졌다. 내가 사는 대전에도 기상청이 있어서 운 좋게 대전지방기상청 통보관님과 화상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 친절



하게 설명해주셔서 기상이 무엇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여기에는 날씨와 관련된 사람만 출입이 가능하고 대통령님도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라는 설명을 듣고 나니, 오늘의 체험이 더욱더 영광스러웠다.

이곳에서 천리안위성에 대한 것도 배웠다.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정지궤도 기상위성인 천리안 위성은 30분에 한 번씩 날씨정보를 보내주고 있다고 한다. 또한 요즘처럼 눈이 많이 올 때에는 12분에 한 번씩 보내주기도 한다. 천리안 위성이 없을 때는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외국 위성의 날씨정보를 돈을 주고 사와야 했다고 전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리안위성은 국비 절감과 한국형 기상시스템을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해주셨다. 이처럼 날씨예보라는 것이 과학기술과 전문가들의 노력이 합해져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어서 더욱더 값지다고 느끼게 되었다.

맛있는 점심을 먹고 난 후, 롤 모델들과의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총 세 분의 예보분석관님을 만났는데, 김성묵 예보분석관님 외 2명이었다. 견학을 하고 난 그 다음날 TV를 시청하는 도중에 김성묵 예보분석관님을 뵈 수 있어서 깜짝 놀라기도 했다.^^ 복잡한 기상정보를 쉽게 분석해서 일반인들이 편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생님과 같은 일을 담당하는 분들이었다.

‘기상정보의 메카’ 기상청을 다녀오니 앞으로는 날씨를 무시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기후변화를 겪고 있다. 그래서 더욱 정확한 기상시스템이 필요해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기상시스템을 더 정비하는 것이 기상청이 나아가야 할 길인 것 같다. 또한 교과서 속의 ‘자연재해는 막을 수는 없지만 예방할 순 있다’는 말을 직접 보고 느낀 소중한 경험이였다. 우리를 위하여 밤을 새워서 예측하시는 기상청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기상청이 앞장서다!



김하진 / 정보통신기술과



“기상청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각 부처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실적검증을 하는 자리인 정부대전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서기관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질문을 하였다. 이에 나는 “열정만 있으면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제작년 말부터 내게는 작은 소망이 있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 또는 잠자리에 들 때에도 계속 생각을 하며 지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공무원 정보 지식인대회’에서 기상청 대표단이 최고의 성적을 거두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선 대회의 취지와 방향에 맞는 전략부터 구상해야 했다. 먼저 대회의 기본방향과 평가기준에 맞춰 우리청의 정보화 정책기반 수립을 위해 심도 있는 회의로 시책을 발굴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각 지방청 예선을 거쳐 선발된 우수자 23명을 대상으로 민간 IT교육

센터에서 ‘기상청 정보지식인대회’를 개최하여 기본지식, 트렌드 및 국가정보화정책 등의 종합지식과 IT기술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역량을 평가하여 최종 4인을 선발하였다.

중앙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기상청을 대표할 참가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인터넷 기반의 최신 정보화 기술’과 ‘과년도 정보화 기출문제’를 수시로 제공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정보화 백서’ 등 각종 관련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그리고 적용성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믿을만한 정보를 찾아내서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배양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래서 출제경향을 분석해 핵심이론, 다양한 예상문제 및 모의 기출풀이 등을 적시에 지원해 주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화의 일반화에 따라 집합교육에서 사이버교육 위주로 추진하였으며, 개개인의 취



약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제공 및 전문적 교육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역량을 최대로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개인부문은 100% 참가자 혼자만의 실력으로 판가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최선을 다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더욱이 그 실력은 단시간에 쌓아지는 것이 아니며, 몇 년 전부터 상당기간 동안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반면, 기관부문에 있어서는 개인 성적이 30%를 차지하고, 나머지 70%는 그 기관에서 추진한 정보화역량 참여 실적, 인력개발 시책계획, 상시학습 실적, 자체 선발대회 개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각 기준에 맞춰 상당기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만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2012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에는 이런 모든 조건이 잘 조합되어 이루어졌다고 본다. 중앙대회를 대비하여 민간 IT교육센터에 위탁하였을 때에도, 참가자들은 교육이 끝나면 매일같이 자발적으로 밤늦도록 보강 연습에 매진하였다. 이뿐 아니라 상호간의 정보 교류와 더불어 뛰어난 팀워크를 보여주었고, 주관부서인 정보통신기술과에서는 전년도 최우수기관과 우수자를 직접 만나 노하우를 벤치마킹하여 대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중앙부처,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104개 기관에서 총 382명이 출전해 중앙공무

원교육원에서 개최되었다. 그 결과, 기상청은 ‘기관부문 대통령상’과 ‘개인부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는 역대 최고의 성과였을 뿐 아니라 타 부처에서도 이러한 성과는 최초였다. 대한민국이 IT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시점에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를 기상청이 견인한다』해도 지나친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 올해에는 2개 부문에서 수상해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서비스 기관으로 우뚝 서게 됐다.

작년 초, 2011년도 성과를 보고 드릴 때 차장님께서 “전년도 잘했지만 올해에는 더욱 잘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보라”고 말씀을 하셨다. 기상산업정보화국장님께서서는 본인이 국장으로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성과가 잘못 나오면 곤란(?)하다고 말씀하시며, 매주 회의 때마다 많은 관심을 표명하시고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

간부님들의 이러한 관심과 지원, 대회 참가자들의 피나는 노력과 의지, 그리고 주관부서의 확고한 추진목표와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에 ‘2012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에서 최상의 결과를 성취하였다고 생각하며 오늘도 힘차게 외쳐본다.

“기상청 파이팅!”

기상정보, 이젠 문자보다는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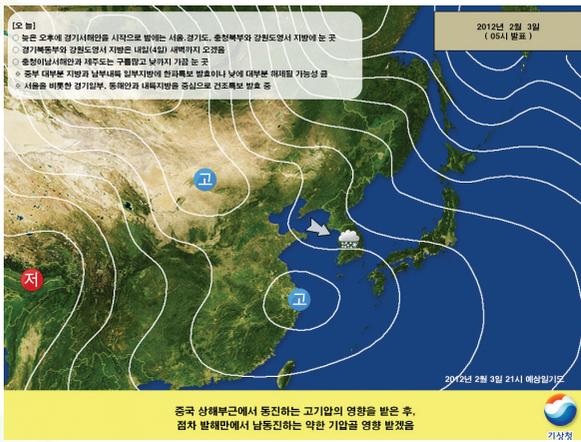
— ‘그래픽캐스트’를 소개합니다

예보기술팀

그래픽캐스트는 그림을 의미하는 ‘graphic’과 전달을 의미하는 ‘cast’라는 단어를 합성한 것이다. 그래픽캐스트는 기상정보의 고객인 국민들이 한눈에 쉽고 빠르게 날씨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예보관이 직접 짧은 설명문과 함께 날씨의 변화를 그려서 표현하는 ‘그림예보’이다. 새로운 기상정보 서비스인 그래픽캐스트는 2010년 6월부터 기상청의 보도자료에 첫선을

보였으며, 1년 뒤인 2011년 6월부터는 기상통보문과 함께 정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기상통보문용 그래픽캐스트는 홈페이지와 기상청의 맞춤형 통보시스템을 통해 일반국민과 방재·유관기관 관련 담당자들에게 일 4회 육상과 해상으로 나눠 제공되고 있다. 기상청 홈페이지에 제공 중인 그래픽캐스트는 방송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전해지기도 한다. 한 예로 2012년 2월 3일 05시 통보문과 함께 제공된 육상용 그래픽캐스트는 SBS 아침방송 ‘모닝와이드’에 활용되기도 했다.

그래픽캐스트는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 기상청의 날씨종합 페이지 왼쪽하단의 그래픽캐스트를 클릭하면, 큰 화면으로 감상할 수 있다.



[기상청 그래픽캐스트- 육상 (2012. 2. 3. 05시)]
[SBS 모닝와이드 방송 활용(2012.2.3)]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날씨 > 날씨종합 메뉴의 그래픽캐스트(왼쪽 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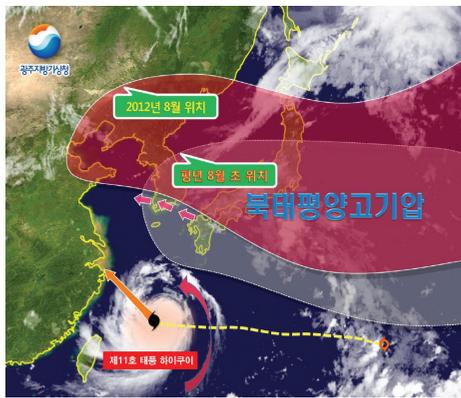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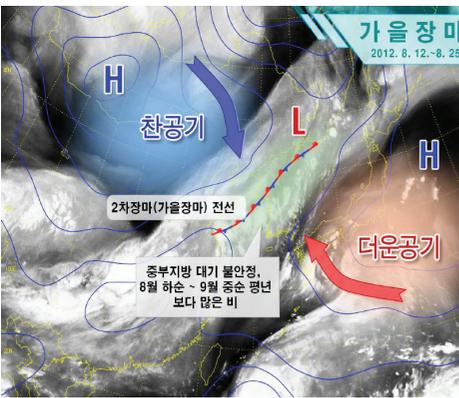
[2012년 12월 3일자 보도자료용 그래픽캐스트 작업 모습(좌)과 보도자료(우)]



기상청 보도자료(2012. 7. 19)



한국경제(인터넷, 2012. 7. 20)



〈최우수상〉가을장마 - 원주기상대 김기현
 〈우수상〉광주 올 들어 최고기온 기록 경신 - 광주기상청 예보과 이정미
 〈우수상〉제주도 대설 예상 - 제주지방기상청 예보과 김성수

예보관은 통보문용 그래픽캐스트뿐만 아니라, 날씨 상황을 설명하는 보도자료용 그래픽캐스트를 직접 작성하기도 한다. 일기도 자료 위에 날씨 아이콘, 화살표, 도형 등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에 비나 눈이 많이 오게 된 원인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간단한 설명을 덧붙인다. 그래픽캐스트의 중첩자료로는 관측자료, 동네예보, 일기도, 위성, 레이더, 수치모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날씨상황에 따라 가장 최적의 자료를 예보관이 직접 골라 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그래픽캐스트란 말은 그림예보를 작성하는 프로그램 이름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급변하는 기상현상에 대한 원인을 설명한 그래픽캐스트 그림은 보도자료에 포함되어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과 언론에 즉각 전달된다. 이 내용들은 언론에서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전해지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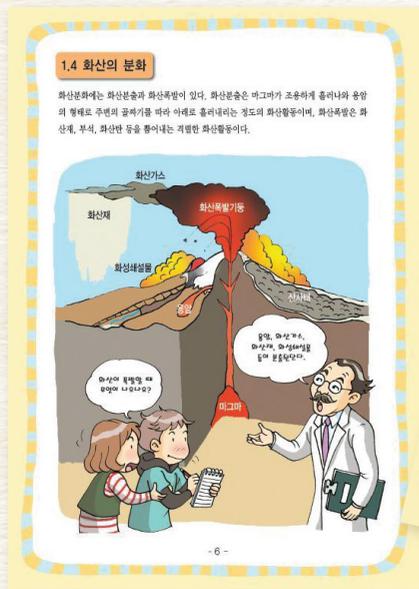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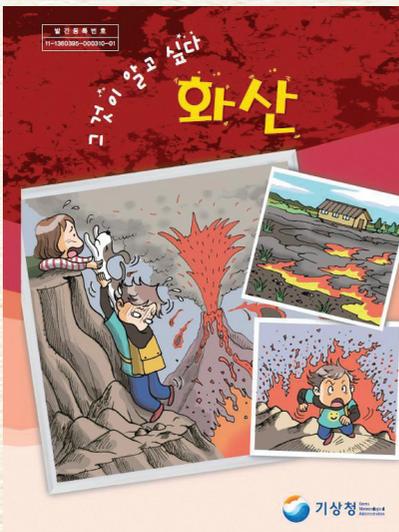
지난해 10월 기상청에서는 이해하기 쉽고 예술적 감각이 넘치는 그래픽캐스트 활용을 위해 자체적으로 「그

래픽캐스트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모두 57개 작품이 응모되었으며 이중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4편이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은 원주기상대 김기현 주무관의 작품인 〈가을장마〉였다. 북서쪽 찬공기와 남동쪽 더운 공기사이에서 형성된 장마전선의 모양을 위성영상과 일기도를 활용하여 한 눈에 설명하고 있다.

우수상은 광주지방기상청 예보과 이정미 주무관의 〈광주 올 들어 최고기온 기록 경신〉이라는 작품과 제주지방기상청 예보과 김성수 주무관의 〈제주도 대설 예상〉이 선정되었다. 북태평양고기압의 위치에 따라 광주에 최고기온이 나타나게 된 이유와 상층의 찬공기와 따뜻한 해수면의 온도차에 의해 발생한 눈구름으로 인한 제주도 폭설 상황을 각각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상청은 좋은 프로그램의 사회적인 공유를 실천하기 위해, 그래픽캐스트 프로그램을 학계와 산업계에 배포용으로 별도 제작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 '화산'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원인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 설명하고 화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사례, 국내외 경보체계에 대하여 삽화를 통해 알기 쉽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화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언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화산 폭발의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책 내용보기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 기상청소개 > 홍보실 > 자연재해홍보만화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12.4)

기상청 봉사모임인 단비회와 기상캐스터 등 총 60여명이 모여 김장 400포기 담그기에 참여했다. 이날 만들어진 김장은 주변 복지센터에 전달됐다.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기상청은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변모하는 기상청의 살아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합니다. | 편집단



사내방송국 '다락방' 현판식(12.11)

직원 간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사내방송국 '다락방'의 현판식을 가졌다. '다락방'은 네 차례 시험방송 후, 1월 4일부터 정규방송을 시작했다.

제15차 WMO 아시아지역협의회 총회 참석(12.13~19)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이번 총회에 이일수 차장을 수석으로 한 기상청 대표단이 참석해 기상수문 관련 지역현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베트남과 한국, 인연이 계속되다(12.18~21)

베트남기상청의 차장 일행이 한국기상청의 선진기상기술과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고자 방문하였다.

KBS 나눔문화 생방송 출연(12.21)

조석준 청장은 성금 모금 프로그램 '나눔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에 출연하여 직원들이 모은 성금 천만 원을 기탁하고 국민께 격려 말씀을 드렸다.



'2012 슈퍼스타 KMA' 개최(12.21)

기상인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자리로, 전국예선을 거친 10팀이 참가해 노래, 단막극, 댄스 등을 선보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정년퇴임식(12.28)

평생을 국가기관에 헌신하고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광주 지방기상청의 김인태, 대전지방기상청의 허형재 등 퇴임하는 사람들에게 훈장 및 공로패를 수여했다.



여럿이 하나되어 즐거운 Quiz! 를...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머리 좀 식히면
어떨까요? 「하늘사랑」도 읽고, 상품도 타고,
스트레스도 풀고...

5분의 여유만 있으면 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이번 달 퀴즈

- '숲'과 '수풀이 우거진 곳'을 합쳐서 만든 제주 고유어는?
① 꽃자왈 ② 공자왈 ③ 정개밭 ④ 구남물
-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주관하고 있는 '신생아 살리기 00뜨기 캠페인'에서 00에 들어갈 말은?
① 장갑 ② 모자 ③ 양말 ④ 목도리
- 기상정보의 고객인 국민들이 한눈에 쉽고 빠르게 날씨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예보관의 설명문과 함께 날씨의 변화를 그려서 표현하는 '그림예보'란 무엇인가?
① 그래픽캐스트 ② 그래픽디자인 ③ 그래픽카드 ④ 그래픽캐스팅

지난 달 퀴즈 정답 :

- ② 역사교훈여행
- ① 다락방
- ③ 매지구름

지난 달 퀴즈 정답자 :

1. 이상훈(고양) 2. 정이화(여주)
3. 양찬윤(중평) 4. 김두형(대전)
5. 유재범(서울)



퀴즈 정답은

퀴즈 정답은 1월 25일까지 전자메일(Kimhy80@korea.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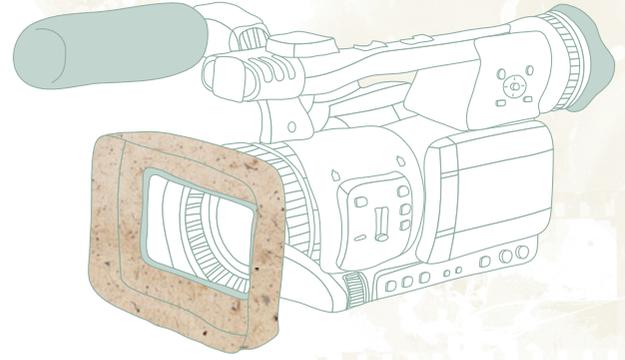
「하늘사랑」은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매 정도 (아래한글 10point, 줄간격 160%, A4용지 1장 반 정도)이고, 매월 2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글과 관련된 사진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채택된 외부기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인사발령

내용	일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전보	12.17	기상청	기후과학국	일반직고위공무원(국장)	권원태
			기상산업정보화국	일반직고위공무원(국장)	엄원근
			국립기상연구소	기상연구관(소장)	남재철
퇴직	12.31	기상청	서기관	김인태	
			기술서기관	정해순	
			기술서기관	허형재	
전보	1.3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분석과	기상연구관	유철환
		예보국	국가태풍센터	기상연구관(센터장)	이종호
			수치자료응용과	기상연구관(과장)	주상원
		관측기반국	지진감시과	기술서기관(과장)	남효원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	기상연구관(과장)	최영진
		국립기상연구소	응용기상연구과	기상연구관(과장)	정현숙
			기후과	서기관(과장)	이종하
		대전지방기상청	수원기상대	기상연구관(대장)	류상범
		국립기상연구소	연구기획운영과	서기관(과장)	조진현
			대전지방기상청	인천기상대	기술서기관(대장)
		국립기상연구소	정책연구과	기상연구관	신진호
			연구기획운영과	기상연구관	이영곤
			응용기상연구과	기상연구관	김연희
			황사연구과	기상연구관	박영산
			예보연구과	기상연구관	하중철
근무지정		예보국	총괄예보관실	기술서기관	전준모
공로연수		예보국	국가태풍센터장	기술서기관	김태룡
		관측기반국	지진감시과장	기술서기관	오용해
		대전지방기상청	인천기상대장	기술서기관	박남철

하늘을 친구처럼, 국민을 하늘처럼



대설 공익캠페인



모자, 목도리, 장갑 챙기는 당신은 안전 스타일~



언제나 밝은 시야 서행 운전은 생명을 지키는 일!



쌓이기 전 제설 작업, 비닐하우스 붕괴, 농작물 피해에



미리 미리 대비하는 당신은 안전 스타일~



기상청
대설주의보 발표
12월 14일 16시 00분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기상정보 어플리케이션



- 기상청 홈페이지
- 모바일 앱 기상청 날씨
- 131 기상콜센터
- 기상청 날씨 ON

언제나 여러분의 생활 가까이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기상청이 없다면?



오늘 출근할 때는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할지, 주말 나들이 길에는 비가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겠요. 또 올해 강수량은 농사짓기에 적당할지, 태풍이 오는데 배가 출항을 해도 될지 아닐지 알쏭달쏭, 수능 시험 길이 얼마나 추울지도 궁금하고, 기후변화로 우리나라 우리나라 날씨가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도 아리송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상청이 하는 일은 알기 쉽게 왜든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날씨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주는 각종 기상지수를 발표하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같은 국제행사에도 기상정보 서비스를 하죠. 기후 변화정보로 농어촌을 지원하고, 지진이나 화산폭발을 감시하는 일도 기상청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상청의 업무는 '알기 쉽게 업무'가 아니라 '국민기상업무'라고 부릅니다.

2시간 뒤, 3일 뒤의 날씨가 궁금해요? 궁금하면 예보 확인!



6 HOUR

초단기예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 대해 현재부터 6시간 이내의 기상상황을 **1시간 간격**으로 알려줍니다. 기온, 강수량, 강수형태, 상대습도, 풍향, 풍속, 하늘상태, 낙뢰 등 8개의 기상실황과 강수형태, 강수량, 하늘상태, 낙뢰 발생확률 등 4개의 예측요소를 발표합니다.



3 DAY

동네예보

3일 이내의 날씨, 강수량, 강수확률, 아침 최저기온, 낮 최고기온, 풍향, 풍속, 파고 등 12개 예측요소를 **3시간 간격**으로 알려줍니다.



1 WEEK

주간예보

모레부터 6일간 오전, 오후의 육·해상의 날씨, 최고·최저 기온, 파고를 **매일 2회** 발표합니다.



3 MONTH

장기예보

1개월 전망은 **순발**, 3개월 전망은 **월별**로 평균기온과 강수량의 변화, 기압계의 동향을 알려주어 수요자가 미리 기상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 YEAR

기후전망

발표된 다음다음 계절에 대한 기온, 강수량, 엘니뇨/라니냐 전망을 **연 4회** 발표하며, 1년에 한번 다음 해에 대한 연 전망을 발표합니다.

